

# 해외서 주목받는 'G80'... 앞·뒤·측면 '완벽 디자인'

(제네시스)

美 매체들 연이어 긍정적 평가  
오토블로그 "완전히 새로운 모습"  
모터트렌드 "최고의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의 대표 제품인 고급 세단 G80의 3세대 모델이 출시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지난 5일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3세대 G80이 국내는 물론, G80의 주요 시장인 미국 언론 매체들도 관심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도 각 매체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다. G80은 2008년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중형 세단으로,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의 탄생을 주도한 핵심 모델이다.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전문 매체 '카엔드라이버'는 "신형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인 오각형 그릴과 헤드램프를 결합한 과감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럭셔리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며 3세대 G80의 전면부 디자인을 주목했다.



제네시스 3세대 G80 전면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도 G80의 앞모습에 주목했다. 매체는 "신형 G80은 GV80에 먼저 적용된 디자인 정체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며 "무엇보다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 한 크레스트 그릴과 측면으로 길게 이어지는 쿼드램프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G80의 전면부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를 적용했다. 이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것이다. 크레스트 그릴은 가운데 방패 문양을, 쿼드

램프는 양쪽의 날개를 상징한다. G90에 처음 적용된 이후 GV80과 G80을 거쳐 완성도가 높아져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G80은 후륜구동 세단의 비율을 바탕으로, 쿠페와 같은 매끄러운 루프라인을 더했다. 클래식카를 연상시키는 '파라볼릭 라인'과 볼륨감을 강조한 '에슬레틱 파워 라인'이 특징이다.

미국에서 권위 있는 자동차 매체인 '모터트렌드'는 '최고의 신형 럭셔리 세단을 만나다'라는 제목과 함께 G80의 측면 디자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 매체



제네시스 3세대 G80 후면부

는 "G80의 옆모습은 G90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좀 더 짧은 차체로 인해 어깨선이 보다 잘 드러난다. 새로운 패스트백 디자인 또한 G80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동차 매체 '잘롭니'는 '말도 안되게 멋진 신형 제네시스 G80'이라는 다소 과격적인 제목과 함께 G80의 후면부 디자인을 주목했다. 매체는 "G80의 두 줄 테마는 아름다운 뒷모습으로도 이어진다"며 "새로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부드러우며 곡선미가 있고 훨씬 유기적인 느낌을 준다"고

평했다.

G80은 후면부 역시 전면부처럼 두 줄 테마로 완성됐다. 트렁크 표면을 말굽 형태로 동글게 음각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의 유명 자동차 매체인 '로드앤트랙'은 G80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두고 "신형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롭고 멋진 디자인 언어를 통해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등과 경쟁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U+-포테닛, 자동화사업 MOU

# 물류 자동처리 가능한 '스마트 항만' 현실화

무인화·자동화 기술에 5G 결합  
서비스 시나리오 하반기 구체화

LG유플러스는 무인자동화 로봇 개발 전문업체 포테닛과 '5G 기반 스마트 항만 물류 자동화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5G 스마트 항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물류 자동화' 분야가 중심이다. 포테닛이 보유한 물류 설비의 무인화·자동화 기술과 LG유플러스의 5G 기술 등을 결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5G 기반 무인 설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무인 설비와 5G 네트워크 인프라 연동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의 관제 시스템 구축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 기반 무인 설비 원격제어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상반기 중 항만 물류 설비의 무인 자동화를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의 물류 설비



스마트항만 물류 자동화 개념도.

/LG유플러스

와 환경을 분석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실제 연구 개발과 구현된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물류 자동화가 상용화되면 항만 내에서는 수동 조작 없이 다수의 물류 설비가 자율주행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관제 센터에서는 5G 통신을 통해 소수의 인원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용 절감을 통한 스마트 항만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현대글로비스, 'GLOVIS+' 웹진 발행

임직원·외부독자 대상 소통

현대글로비스가 멀티미디어형 사보를 도입하며 임직원과 외부 독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소통에 나선다.

글로벌 SCM 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는 2007년부터 발행해온 사보 'GLOVIS+(글로비스 플러스)'를 웹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비스 플러스는 현대글로비스의 소식을 담은 책자형 사내보로 임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13년 동안 매달 발행됐다.

'더하다', '잇다'의 뜻을 담은 플러스(+를)를 사용해 임직원을 넘어 고객,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호에 담았다. 현대글로비스는 3월부터 글로비스 플러스를 웹진으로도 제작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웹진 글로비스 플러스는 현대글로비스 주요 뉴스를 비롯해 해외법인 소개·팀 인터뷰·기업문화 정보·업계 트렌드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콘텐츠는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더욱 생생하게 독자와 만난다.

/양성운 기자

## LG헬로비전 "CU서 '33 요금제' 만나세요"

'CU 안심 유심 11GB' 요금제 출시

알뜰폰 스테디셀러 '33 요금제'를 집 앞 편의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CU 안심 유심 11GB(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 전국 CU매장에서 판매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알뜰폰 접근성과 채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다.

'CU 안심 유심 11GB(3만3000원)'는 이통사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음성·문자는 물론 데이터까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실상 완전 무제한 요금제다. 해당 요금제는 LG유플러스망 상품이며,



모델이 CU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LG헬로비전

기본료가 동일한 기존 KT망 무제한 유심 상품(The 착한 데이터 USIM 10GB)도 CU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토요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 2종 출시

취득세 등 260만원 세금 감면 혜택

토요타코리아가 10일부터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와 '2020년형 프리우스 AWD'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에 출시되는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는 프리우스 C모델의 장점인 공간성과 효율성에 개성적이고 액티브한 스타일을 더하였으며, 2020년형 프리우스는 안전 사양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SS)를 장착하고, 새롭게 AWD 모델을 추가했다.

두 차종 모두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로 취득세 감면 등 최대 260만원의 세금 감면과 함께 도심 혼잡 통행료 감면 및 공영 주차장 이용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의 가격은 2590만원이며, 2020년형 프리우스 및



도요타 프리우스AWD.



도요타 프리우스C 크로스오버.

프리우스 AWD가격은 각각 3378만원과 3693만원이다.

/양성운 기자